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③  
전통 선당의 내부 모습

# 칠척단전에서 부처를 이룬다

〈七尺單前〉

## 중앙엔 승형문수상 모서

〈僧形文殊像〉

선당(禪堂, 선방)은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 정진하는 공간이다. 집단적으로 모여 참선 수행하는 곳으로 선종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곳이 바로 중생을 부처로 변신시키는 곳이다.

선당에 대한 이칭은 참으로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방(禪房)'이라고 하는데 선당의 우리식 표현이다. 그러나 좀 비칭(卑稱)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명칭은 '승당(僧堂)' '선당(禪堂)'이다. 승려들이 기거하는 곳, 참선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밖에도 좌선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좌선당(坐禪堂)',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선불장(選佛場)', 운수납자가 좌선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운당(雲堂)'이라고도 한다. 또 문수상을 모셨다고 하여 '성승당(聖僧堂)'이라고도 한다.

중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당우나 물건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낸다. 책명에도, 사찰 이름도 기본이 두세 가지 이상이다. 예컨대 송대 5산(五山)

(蓮花庵主不佞)의 평장 끝에는 이와 관련한 선문답이 나온다. 선문답을 일명 '공안(公案, 화두)'이라고 하는데, 선을 주제로 한 문답이다. 일독해 보는 것도 답일 것이다.

其或未然三條椽下七尺單前 試去參詳看"  
(기록미연 삼조연하 칠척단전 시거참상간)  
만일 혹 그렇지 못하다면 서까래 3개 아래, 일곱 자 되는 단(單) 앞에서 한 번 자세히 참구해 보라.

'삼조(三條)'는 세 기둥을 뜻하고 '연(椽)'자는 천정의 '서까래'를 뜻한다. 곧 '서까래 세 개 아래'라는 말로써,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즉 가로 넓이가 머리 위에 있는 천정의 서까래 세 개인데, 3개 라면 약 1m정도가 된다. 그리고 '칠척단전(七尺單前)'에서 '단(單)'은 한 명의 수행자가 좌선, 취침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일곱 자 되는 단(單) 앞'이라는

### 1·2m 공간에서 좌선·공양·취침

### 경산사 '천승당' 대중 854명 수행

의 하나인 천동사의 경우도 '천동사(天童寺)', '천동선사(天童禪寺)', '경덕사(景德寺)' 등 현재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나 된다. 처음 중국을 여행하는 이들은 한참 우왕좌왕한다.

선당은 칠당(七堂) 가람 가운데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당우이다. 선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송대에는 선당 하나에 대략 200명 이상이 기거했다. 남송 때 5산의 하나인 황주 영은사 선당 내부도를 보면 약 250개의 좌단(座單)이 설치되어 있다. 250명의 수행자들이 기거했다는 것이다.

간화선의 대성자 대혜종교(1089-1163)가 주지(住持)로 있던 황주(임안) 경산사(徑山寺)는 5산 가운데 가장 컸는데,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는지, 기존의 선당 외에 별도로 '천승각(千僧閣)'이라는 대승당(大僧堂)을 지어서 수용했다. 한 승당에 무려 천 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생활했다는 것인데, 중국인들이 과장법을 즐겨 쓰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족히 500명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천승각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다가 "모두 854명의 청중(대중)이 수행했다(淸衆, 共八百五十四員)"는 기록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대 북조선의 공자정각(1091-1157)이 주지로 있던 영파(영주 부근) 천동사는 사격(寺格)이 5산 가운데 세 번째였는데, 장성경(張十慶)이 쓴 <중국강남선종사원건축>에 보면 선당 크기가 전후면 모두 14칸으로서 가로 200척(약60.6m), 측면이 160척(약 48.5m)으로서 약 890평이나 되었다. 워낙 커서 '대승당(大僧堂)'이라고 불렀는데, 참고로 조계사 대웅전이 155.7평이라고 하므로 약 5.7배나 된다. 지금 선당은 당시와 비교하면 7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좌선하고 있는 스님도 30명 정도라고 한다.

선당(선방)에서 한 명의 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가로 1m, 세로 2m 정도이다. 이것을 선어록 등에서는 '삼조연하 칠척단전(三條椽下七尺單前)'이라고 한다. 곧 선당 내에서 한 명의 수행자가 사용하는 공간 단위(單位)를 가리킨다. <벽암록> 25칙

말인데, 일곱 자(尺)라면 약 2m가량 되는 '단(單, 앉는 자리)'이다. 이 선문답(공안)의 뜻은 '만일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다면 그대가 좌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참구해 보라'는 뜻이다. 이 공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수행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대략 가로 1m, 세로 2m가량이다. 다다미 한 장, 합판 한 장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훗날 명대(明代)에 이르러 재당(齋堂, 식당)이 신설되기 전에는 여기서 좌선, 공양, 취침 등 일체를 해결했다.

사실 우리나라 선방도 마루와 온돌이라는 생활문화적인 차이만 다를 뿐 좌선하고 잡자는 개인적인 공간은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해인사 총림도 선원과 강원 모두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이다. 독자들은 '어휴 답답해' 하고 생각할지 모르다. 그러나 쳐다보면 서까래가 보이는 시원한 천정, 공연을 하고도 남을 만큼 큰 방은 반야지혜를 갖춘 부처를 만들기에 족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점점 개인방을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참선하므로 방선 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해서라고 한다. 천 년 전 제도를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방을 쓴다면 그나마 옛 제도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형식이라도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속에 내용물이 모이게 된다. 땅을 파 두면 물이 고이듯이 말이다.

천 년 전 중국 선방의 내부 구조와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당송시대 선방의 내부 구조를 보면, 통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모두 넓은 마루(좌상, 坐床)로 연결되어 있다. 남북은 좁은 마루이다. 여러 개의 좌상들이 폭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장련상(長連床)' '장련담(長連欄)' '장상(長牀)'이라고 한다. 또 앉는 자리를 표시한 명단(名單, 이름패), '계람패(戒牒牌)'라고도 함이 붙어 있다고 하여 '단(單)'이라고도 한다. 또 선반에는 발우를 둔다고 하여 '발위(鉢位)'라고도 한다. 그 밖에 '피위(被位)', '좌위(座位, 앉는 자리)', '단위(單位, 명패)' 등 많은 명칭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일본 조동종 총지사 선당 내부 모습. 선원청규에 설명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로서 천 년 전 중국 선당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운데는 통로이고 양쪽은 좌선하는 곳으로 이곳을 장련상, 단(單), 피위 등 여러가지로 부른다. 멀리 창문 쪽에는 사물함이 보인다.

### 옛 선당 모습과 똑 같은 곳 한 두곳 있어야

###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지금 옛 제도 또한 사라져 간다

많은 명칭 때문에 골탕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통로는 검은색 벽돌을 깔아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어 있고, 벽쪽 마루(장련상長連床)는 통로보다 60cm가량 높게 만들었다. 또 장련상은 2단으로 앞단 북도 쪽은 좀 낮고 벽쪽 뒷단은 좀 높다. 앞단은 나무 마루인데 여기에서는 발우를 펴 공양을 하고, 뒷단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 여기서 좌선 취침을 한다. 물론 각 좌선하는 자리에는 포단(蒲團, 방석)을 깔다. 대혜선사의 <서장>에는 '포단상사(蒲團上事, 포단 위의 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좌선(참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앞단 천정에 있는 햇대(이것을 의가衣架, 機架라고 함)에는 가사를 걸고, 벽 쪽 선반에는 발우를 놓고 그 아래에는 상하 2단으로 사물함을 설치하여 위 칸에는 옷과 개인용품 등을 넣고 아래 칸에는 이불 등 침구를 넣는다. 이 사물함을 '단상(單箱, 상자)'이라고 한다. 선방의 내부 구조는 거의 군 내부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설에 의하면, 근대 일본군 창설자가 영평사 등 선종사찰의 선당 내부를 보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한다.

선불교가 왕성하던 당송시대 경산사와 천동사, 그리고 영은사 선당 내부도를 보면 많은 수행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벽 쪽 말고도 중간에 '내 천(內) 자' 모양으로 좌선, 취침할 수 있는 마루 즉 장련상(長連床)이 여러 줄 설치되어 있다. 중좌(中座)를 치지 않고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당 중앙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상을 모시는데, 보관(寶冠)을 쓴 천형적인 보살상이 아니라 사문(沙門, 스님) 모습의 '승형(僧形)문수상'을 모신다. 왜 승형문수상을 모시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같은 사문이였음을 보여주어서 분발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혼자 추측할 뿐이다. 문수상을 '성상(聖像)' '성승상(聖僧像)'이라고 한다. 간혹 선원에 따라서는 가섭존자나 포대화상을 모시기도 한다.

선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문수보살상을 모시는 것은,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불모(佛母, 반야지혜)'라고 한다.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 즉 '깨달음(지혜)을 완성한 사람, 깨달음의 본질'의 모체'라는 뜻이다. 이 말에서도 본다면 '부처'란 곧 '반야지혜를 완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반야지혜가 작용(작용)하지 않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그 기준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나라 선당은 모두 평면 온돌방 구조라서 천 년 전 당송시대 선방 내부의 모습(북도, 마루 구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 온돌방이지만 중국 전통 선방 모습과 같은 곳은 쌍계사 칠불암 아자방(阿字房)이다. 아자방을 보면 아자(阿字) 안쪽 바닥은 북도이고 바깥쪽은 약 50cm가량 높인데, 여기서 좌선하는 곳으로 본래는 마루(장련상)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아자방은 당송시대 선원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북도와 좌

선하는 곳(외당) 모두 온돌을 깔았는데, 골고루 모두 따뜻하다는 것이다. 누가 구상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선원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선승이였을 것이다.

선당은 크게 전당(前堂)과 후당(後堂)으로 나눈다. 선당을 대략 안쪽으로 나누어 앞쪽을 '전당'이라 하고, 뒤쪽을 '후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당 안쪽을 내당(內堂), 입구 쪽을 외당(外堂)이라고 한다.

좌선하는 자리는 주지·수좌·서기·전좌 그리고 일반 선승들은 안쪽 즉 내당에서 좌선하고, 6지사(知事) 가운데 도사(都寺)·감사(監寺)·유나(維那)·부사(副寺)·직세(直歲) 등과 6두수(六頭首) 가운데 지객(知客)·지욕(知浴)·지전(知殿), 그리고 시자(侍者)와 객승(客僧, 擲側) 등 출입이 잦은 소임자들은 외당에서 좌선한다.[각 소임에 대해서는 '총림의 구조와 기구'에서 설명할 예정임]

지금 천동사 선당 크기는 선이 왕성하던 남송시대와 비교하면 7분의 1정도이고, 선당 내부의 모습은 80% 정도 남아있다.

우리나라 선당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고, 일본 조동종 분산인 영평사(永平寺)와 동북사, 총지사선당 내부는 100%에 가깝다고 한다. 우치(宇治)에 있는 황벽종 황벽사도 중국 황벽산 황벽사 그대로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옛 선당 모습과 똑 같은 곳이 한두 곳 있어야 한다. 고증 없이 새로 짓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그것은 무지의 산물이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梵鐘名家 聖鐘社

##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재(改改)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재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재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 안 돼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재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울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산 일광식 (종묘문화재단 대표인민명장)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신시: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함곡리 406-28 Tel:043-536-2581